

# 군사경찰, 민간인 상대 전화수사 軍 “문제인정... 통제외도 없었다”

민간인 대상 밀심참여 경위 질문 수사권, 극히 제한된 분야만 가능 “월권행위 넘어 수사 기본수칙 무시”



2019년 10월 초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에 육군이 헌병의 새IFORM인 군사경찰과 함께 선보인 군사경찰의 투구.

/문형철 기자

경기도 이천시 육군의 전략적 부대 소속 군사경찰 수사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월권적 전화수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은 10일 “확인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며 “민간인과 언론에 대한 통제외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육군 군사경찰, 민간인에게 월권적 이고 고압적 수사

경기도에 하남시 거주하는 민간인 A씨는 9일 해당부대 군사경찰 수사관 B상사로부터 “전략적 부대 모처에서 실시한 ‘밀심(밀리터리 시뮬레이션-모의전투)’에 어떤 경위로 참석하게 됐으며, 참가 당시 사용한 장비의 출처가 어디냐”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말 육군 중사로 전역을 한 민간인에게 군사경찰이 왜 전화로 수사를 하느냐”라며 B상사에게 수사과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에 따르면 B상사는 “A씨를 비롯한 군사동호인들이 어디서 밥을 먹었나”, “특정 업소에서 해당 부대 밀심 실무자들과 함께 자리를 한 이유가 무

엇이냐” 등의 당혹스런 질문을 계속 던졌다.

군사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특별사법경찰권)은 군용품 절취 및 무단점유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B상사의 전화수사는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민간인의 사품을 근거 없이 군용품 절취로 몰아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대는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전투발전을 위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신분조사 등 엄격하게 선발과정을 통해 군사동호인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초청인원들과 과 함께 6mm 플라스틱을 BB탄을 사용하는 에어소프트건으로 밀심을 진행했다.

밀심에 참가한 동호인들도 해당 부

대 정보처의 보안통제에 따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장비를 반납하고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했다.

## ◆군사경찰 B상사, 수사기본도 안 지켜... 언론통제 의혹도

A씨가 밀심 참가 당시 현역이었던 때도, 수사 당시 군 내부 정보체계를 통해 A씨가 민간인 신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B상사는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밟지 않았다. A씨는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하급자라는 인식으로 수사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영관 장교 출신인 한 예비역은 “통상 부대출입 기록과 보안서약서 등이 부대 출입근거로 남아있다”면서 “B 상사의 수사행위는 월권행위를 넘어 수사의 기본수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A씨가 소속된 군사동호회에는 군관련 취재기자가 포함돼, 해당 부대가 과도한 언론통제 목적으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부대 사령관은 최근 부사관 비하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언론통제의 목적은 없었고, 부대 안전활동차원의 조치였지만, 확인 과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KAIST 신성철 총장이 지난 4일 대전 본원 캠퍼스 김병호·김삼열 IT 융합빌딩(N1동) 7층에 위치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 데모 룸을 방문해 한동수 교수와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KAIST

## 스마트폰 블락 기반 코로나 확산 방지앱 개발 (블랙박스)

카이스트 사생활 침해 논란 최소화 동선 공개시 장소 아닌 신호정보

국내 대학 연구진이 사생활 침해 논란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코로나19 노출자 진단·확진자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등 3개 앱시스템을 개발했다.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KAIST(총장 신성철)는 전산학부 지능형서비스융합연구실 한동수 교수 연구팀이 스마트폰의 이동 동선을 기록하는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시스템(앱&웹)’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GPS·무선랜·블루투스·기압계·관성 센서의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기록하는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기존 3T 시스템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접근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스마트폰 블랙박스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내장돼 있는 GPS와 와이파이·블루투스·관성 센서 등을 통해서 수집된 신호를 보관했다가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한다. 또 개인 스마트폰 블랙박스에 저장된 기록은 일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특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문자로 표현되는 장소 정보가 아닌 신호 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다.

/한동수 기자

#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학교 지정 취소

## 서울시교육청

학사 관련 법령·지침 위반 감점요소 국제인재양성·교육격차 해소 저조 학교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반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광진구 대원국제중과 강북구 영훈국제중에 대해 특성화중 지정 목적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다며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두 학교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등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대원국제중, 영훈국제중 2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체육중은 재지정됐다.

평가에서 탈락한 두 학교는 모두 학

교 운영상 문제 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다. 아울러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은 지정 취소의 주요 이유가 됐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

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사회통합전형(희희군 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아 학교 자체의 학생 교육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 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두 학교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교육부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에 특성화중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동수기자 hys@

## 성균관대, 지능 내재된 인공촉각기 개발

이내응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 인체 감각기관 유사 시냅스 기능 모방 옛지 인공지능 등 새 패러다임 제공



링 기능 구현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터치의 횡수 및 순서 등을 예측함으로써 소자 자체에 인체 감각기관의 감각기역과 유사한 메모리 기능이 구현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인공 촉각기 자체에서 1차적인 신호 전처리가 가능한 것은 물론, 소자가 유연성을 갖도록 개발함으로써 구부러도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다.

성균관대는 이내응(사진)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제1저자 이유림 석박 통합과정생)이 유연성 강유전체 나노복합체를 적용해 인체 감각기관의 유사 시냅스 기능과 구조를 모방해 지능성이 내재된 유연성 인공 촉각기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진은 나노입자-폴리머 복합 강유전체 기반의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용해 유사 시냅스 구조를 구현하고, 동시에 동일 소자의 감지부에 손가락 끝을 터치할 때 발생하는 마찰전기를 이용해 인공촉각기를 구동했다.

나아가 인공 촉각기 어레이를 제작하고 터치의 세기, 속도, 시간에 따라 터치 후 기록되는 트랜지스터 전류, 즉 시냅스 가중치가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해 터치 자극에 대한 적응성 및 필터

이번 연구는 센서 자체에서의 신호 전처리를 통해 프로세서에 부가되는 데이터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차세대 뉴로모픽 감각인지 시스템, 지능형 전자피부, 옛지 인공지능(edge-AI) 등 관련 연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진 기자 ihj@

## 서울과기대, ‘이공분야 대학중점지원’ 사업 선정

전문화된 선진 연구인력 육성

서울과학기술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고 10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환경기술연구소는 ‘환경서비스 플랫폼’을 주제로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원천 및 실증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제(To

p-down)와 수요자 중심 기본과제(Bottom-up) 수행을 통해 환경모니터링, 환경빅데이터, 최적가용기술, 환경거버넌스에 전문화된 선진 연구인력을 육성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 세종대, ‘SJ JOBS 취업프로그램’ 진행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 강의

세종대 취업지원과가 11일 온라인 SJ JOBS 취업 프로그램 ‘면접 이미지메이킹’을 진행한다.

지난 4일부터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을 처음 준비하는 세종대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유튜브 라이브 강의로 열린다.

프로그램은 면접 대비 이미지 전략 수립과 퍼스널 컬러 및 체형에 따른 복장, 메이크업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